

# 제주지역 박물관의 의장적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을 중심으로 -

## A Case Study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Museums in Jeju

- Focused o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박정근\*

Park, Chung-Keun

### Abstract

As architecture has a role of vessel that contains human life, architecture of museums in a region must be a vessel that contains identity of the region. Jeju Province possesses excellent natural landscape acknowledged by the world. As such, architectural design of museums in Jeju region, differentiated in terms of natural, humanist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from other regions, must include identity of Jeju.

Jeju has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so many museums with different themes that it is referred to as the heaven of museums. In addition, museums as cultural facilities must be the measure of cultural level representing regional identity and perform the role of advance guard that leads architectural culture of the region. Also, such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 is an important landscape element that increases value of the region. Based o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 established in 2009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der such critical mind, this study will support desig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useums through case study and analysis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national and private museums in Jeju.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be pursued by future museums that contain identity of Jeju,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is described above.

키워드 : 제주, 박물관, 경관관리지침, 의장적 특성, 형태, 재료, 색채

Keyword : Jeju, Museum,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 Characteristic Design, Form, Materials, Colo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의 보고, 세계환경수도 등 우수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인구수, 경제규모 등의 물리적인 크기에 비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회의 땅으로 다양한 건축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 문화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다양한 테마박물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어 박물관의 천국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제주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뚜렷하다. 제주지역의 박물관은 제주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박물관 건축디자인에 스며들어 건축물이라는 대상을 통해 표출되어야 한다.

이에 제주라는 섬에서 박물관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제주의 미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주만의 고유한 경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 틀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해를 찾아가는 긴 여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사립 박물관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9년에 수립한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관리지침을 통해 의장적 특징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설립되는 박물관이 제주의 정체성을 간직한 경관요소로 건축디자인 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박물관 용어는 미술관, 기념관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박물관 개념을 의미하여 전국 박물관의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지역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9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이하 '경관관리지침'으로 칭함) 내용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제주지역에 설립된 박물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사례대상 박물관이 경관관리지침이 수립되기 전 건축관련 심의 및 허가를 득한 박물관으로 경관관리지침의 기준과는 상이한 의장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관관리지침 요소 중 박물관의 의장적 요소와 연관된 형태, 재료, 색채

\* 정회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장소적 범위는 제주도 전체(부속도서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제주도에 국공립·사립 박물관 중 중점적으로 경관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지역 및 주요간선도로에서 시각적 요소로 부각되는 지점에 위치한 박물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지침의 경관단위개념, 경관관리요소인 형태, 재료, 색채에 관한 관리 기준 등 본 연구에 부합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경관관리지침 수립전 설립된 사레조사 박물관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제주의 국립 박물관·공립 박물관·사립 박물관을 답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주지역의 박물관의 자료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가 2012년 6월~7월 직접 현장답사하고 조사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3 박물관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이에 최근 몇 년간 박물관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파악 할 수 있다. 먼저 박물관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 박물관의 공간개념에 대한 연구분야 셋째, 박물관의 기능과 용도에 관한 연구이며, 넷째 박물관의 외피 또는 외부 의장성에 관한 연구분야 등의 선행연구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Table 1. Recent Researches on the Museum

구분	연구내용
이론	리베스킨트의 유테인 박물관에 나타난 건축 개념 비교에 관한 연구, 정태용, 2012
공간	국내 박물관 건축의 공간구성 특성에 의한 시대적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이재업, 2008 루이스 칸의 박물관건축에 나타난 평면구성의 특성, 김정곤, 2006
기능	건축박물관의 기능구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성용, 2012 박물관에 있어서의 수직동선 요소에 대한 기초적 연구, 심승현, 2010
의장	스티븐 홀의 박물관 건축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표현 특성 연구, 윤종현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타 연구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미흡한 박물관의 의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박물관 의장계획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 고찰

경관관리지침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환경수도에 어울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2009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

지침’이 수립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2010년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경관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항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 2.1 경관단위

경관단위는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 개념 및 기준을 달리 설정하기 위해 도출한 개념이다. 이는 인공구조물이 땅과 풍경의 주인이 아니라 인공풍경은 환경에 조화되는 중속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경관단위는 제주의 자연경관 현황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5개의 ‘기본경관단위’와 주요 경관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4개의 ‘특정경관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한 경관단위<sup>1)</sup>이기도 하다.

기본경관단위는 해발고도와 한라산을 기준으로 분포된 자연경관 현황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2>와 같이 5개의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1 참조)

Table 2. Basic Landscape Units Standard in LMG of Jeju

단위	해당지역
가	한라산-해발고도 600m 이상
나	중산간-해발고도 200m 이상 600m 미만
다	중산간/시가지-해안일주도로로부터 한라산 방향 1.2km 경계선 이상 해발고도 200m 미만
라	중산간/해안/시가지-해안선으로부터 해안일주도로 1.2km 경계선
마	부속도서 및 해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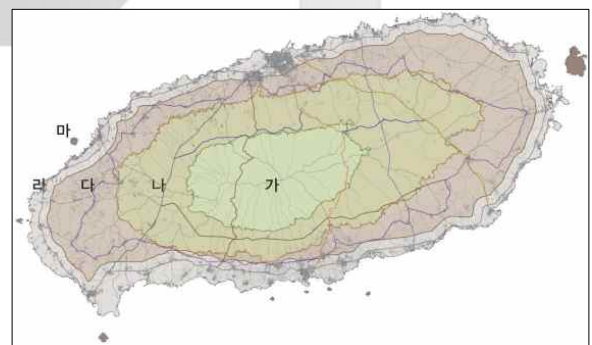


Figure 1. Basic Landscape Units in LMG of Jeju

\* LMG: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경관관리지침)

### 2.2 경관단위 공통 적용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에서는 적용해야 할 7가지의 요소(부지조성, 좌향, 높이, 형태, 재료, 식생, 경관색채)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의장적 요소와 연관된 형태, 재료 및 경관색채에 한정하여 주요 내용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형태

첫째, 제주 고유 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

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10, p.6

공구조물의 매스는 최대한 분절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인공구조물의 형태는 판상형을 지양하고 탑상형을 권장하고 구조물의 재료, 색채 등은 별도의 공동규범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또한 거대구조물의 경우에는 지하화하거나 기존 지형을 고려한 인공 언덕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2) 재료

경관관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료는 먼저 성향에 따른 재료 구분으로 자연재료<sup>2)</sup>, 인공재료<sup>3)</sup>, 고정적재료<sup>4)</sup> 및 유동적재료<sup>5)</sup>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적용 장소와의 관계에 따른 재료 구분으로는 동화재료<sup>6)</sup>와 이질화재료<sup>7)</sup>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재료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자연 재해요인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주변 경관에 조화롭고 기능에 적합한 물성을 갖춘 재료, 제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자연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경관지침에 제시하고 있는 재료관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Table 3. Materials Management Guideline in LMG of Jeju

구분	세부내용
●	염해, 호우, 바람 등 자연 재해요인과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주변 경관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시설물 기능에 맞는 적절한 물성을 갖춘 재료 사용
○	견고한 재질 사용 시 안전성과 표면미관 추구
○	주변 가로 및 건물, 자연경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적합한 재료 선택
△	제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자연 재료 사용
△	제주도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천연재질의 재료 사용 권장 (제주돌, 제주흙, 화산쇄설물 등)

(● 준수 ○ 유도, △ 권장, × 금지)

\* 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10, p.10의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자료 양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함

(3) 경관색채

경관색채 계획과 관리의 범위는 건축물(지붕, 건물 벽면, 대문), 옥외광고물, 기타 시설물(가로시설물, 보행자용 안내판, 대중교통 수단)의 재료색 및 도장색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공통적인 관리 기준은 다음 <표4>와 같다.

- 2) 자연 친화, 비정형적 형태, 부드러운 곡선의 연출이 가능한 재료로서 역사성, 시간적 맥락에 따른 경관 연출이 가능한 재료
- 3) 도시화, 단순한, 차가운, 정돈된, 직선의 연출이 가능한 재료로서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며 표준모형을 지속적으로 복제 가능한 재료
- 4) 변치 않는, 딱딱한, 무거운, 움직이지 않는 성향의 재료로서 오랜 기간 지속성을 지닌 재료
- 5)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부드러운 성향의 재료로서 재배치가 용이한 시설물 재료에 적합한 성향
- 6) 주변의 경관에 위화감 없는 재료로서 주변의 경관과 시각적 연계성을 지닌 재료
- 7) 주변의 경관과 분리되어 눈에 띄는 재료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경관 형성하는 재료에 적합한 재료

Table 4. Color Management Guideline in LMG of Jeju

구분	세부내용
○	다양한 색조화에 의한 경관색채의 전체성(totality) 지향
○	돌담과 어울리는 경관색채로 계획·관리
○	인공물의 색채를 관리하여 자연을 돋보이게 하며, 자연 경관과의 색채조화 지향
○	원칙적으로 저채도 중·저명도 색채 사용
○	제주 경관색채를 기준으로 '제주빛' 50가지 파렛트 제시
△	자연의 주기와 풍경을 반영하는 자연 본연의 색 존중
△	해당지역 자연 및 도시경관과의 색조화에 의한 시각적 관계성 중시
△	오랜 역사와 문화 의식 및 제주 이미지에 합당하며 제주민의 색채심리에 어울리는 색채의 개발 및 활용
△	자연 소재의 색은 원소재의 천연색 그대로 사용 권장
△	건축물 등의 바탕색 도장시 고채도의 색상은 퇴색·탈색되기 쉽고 오염되기 때문에 중·저채도 색상 권장
△	고채도의 색상은 교통표지판, 공공 안내판 등 주목성을 강화해야 하는 곳에 부분적으로 사용 권장
×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 지나친 원색의 색채 사용 지양

\* 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10, p.11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자료 양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함

이와 같은 제주 경관색채 개념을 바탕으로 '제주빛 50가지 파렛트' 중 기본색 10가지를 간추려 재정리하면 다음 <표5>와 같다.

Table 5. Landscape Color in LMG of Jeju - Basic Color

색채 명칭	청정 바다빛	푸른 바다빛	오름 갈대빛	제주 갈옷빛	돌담현무암빛
색채 기호	1040-B40G	1040-R90B	1510-Y20R	4030-Y40R	8000-N
색채 샘플					
색채 명칭	유채꽃빛	제주 숲빛	제주 흙빛	제주 암석빛	제주 굴빛
색채 기호	0580-Y	6030-B90G	7005-Y50R	6020-Y90R	0580-Y40R
색채 샘플					

\* 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10, p.12의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자료 양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함

\*\* 색채 파렛트는 NCS 색체계 표기에 따름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공립·사립 박물관 사례조사

3.1 국내의 박물관 현황

전국에는 현재(2011.12.31 기준) 국립박물관 30관, 등록박물관 664관(공립박물관 312관, 사립박물관 262관 대학박물관 90관)의 박물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미등록 박물관을 포함할 경우 총 801개의 박물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전국인구(50,734,284인, 2011.12.31 기준) 대비 박물관 1개관

당 인구는 63,339 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가의 박물관 1개관 당 인구수를 비교해볼 때(표6. 참조) 우리나라의 박물관현황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장래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able 6. Museums Status of Major Nation in OECD

국가	연도	인구수(A)	박물관수(B)	A/B(천인)
미국	2004	280,000천인	4,609	60.7
프랑스	2004	60,000천인	1,300	46.2
캐나다	2004	31,000천인	1,352	22.9
일본	2004	130,000천인	3,492	37.2
독일	2004	82,000천인	4,034	20.3
한국	2011	50,734천인	801	63.3

※ 표 출처 :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연구자가 내용을 재구성 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68개(미등록11개 포함)의 박물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인구(576,156인, 2011.12.31 기준) 대비 박물관 1개관 당 인구는 8,472 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치의 7.5배에 달하며 부산광역시(208.8천인)보다는 24.5배의 박물관 1개관 당 인구 박물관 설치 현황을 갖고 있다. 제주도가 박물관의 천국으로 불리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7. The Nationwide Museums Status in Korea

구분	인구(A) (천인)	국 립	등록박물관				미 등 록	총 계 (B)	B/A (천인)
			공 립	사 립	대 학	소 계			
서울	10,249	10	10	63	23	96	11	117	87.6
부산	3,550	-	3	3	6	12	5	17	208.8
인천	2,801	-	11	10	1	22	2	24	116.7
대구	2,507	1	4	5	3	12	7	20	125.4
대전	1,515	-	4	6	6	16	3	19	79.7
광주	1,463	1	4	1	2	7	1	9	162.6
울산	1,135	-	7	1	1	9	-	9	126.1
경기	11,937	2	53	53	11	117	25	144	82.9
강원	1,536	2	41	21	5	67	9	78	19.7
충북	1,562	1	25	9	6	40	7	48	32.5
충남	2,101	5	21	14	3	38	6	49	42.9
전북	1,874	1	22	6	4	32	-	33	56.8
전남	1,914	1	26	8	2	36	1	38	50.4
경북	2,699	2	36	11	11	58	15	75	36.0
경남	3,308	3	30	13	5	48	2	53	62.4
제주	576	1	15	38	1	54	13	68	8.5
계	50,734	30	312	262	90	664	107	801	63.3

※ 상기표는 인구 및 박물관 통계자료(2012.12.31) 기준 양식을 연구자가 재 편집한 내용임

이처럼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박물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주의 역사문화 예술에 대한 가치 창출 이외에도 관광산업활성화에 따른 사립테마박물관 설립의 활성화로 인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지역의 건

축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문화시설 중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박물관을 직접 답사하여 사례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경관관리지침에 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사례조사 및 분석

#### (1) 박물관 사례조사 개요

- 1) 일시: 2012. 6. 18~ 7. 2 (총 4차례 현지답사 실시)
- 2) 대상: 제주도내 국공립·사립 박물관 중 중점적으로 경관관리를 시행해야하는 지역 및 주요간선도로에서 시각적 요소로 부각되는 지점에 위치한 박물관
- 3) 조사 박물관 수: 등록된 국·공립박물관 총 16개 중 10개관(63%), 등록된 사립박물관 총 38개관 중 10개관(26%) 총 20개관을 조사대상으로 함
- 4) 조사내용: 박물관의 외부 의장적 요소 중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지침에서 개별 건축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형태, 재료 및 색채를 위주로 조사함

#### (2) 박물관 사례조사 현황 분석

##### 1) 사례조사 박물관의 분포

제주시 소재 박물관 8관, 서귀포시 소재 박물관 12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박물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지침 상의 기본경관단위를 적용하면 경관단위 '가'와 '라'는 없으며 경관단위 '나' 3개관, 경관단위 '다' 5개관 '라' 12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8. Distribution Status of Case Study Museum-1

구분	나	다	라	소계
제주시 소재 박물관	3	2	3	8
서귀포 소재 박물관	-	3	9	12
총계	3	5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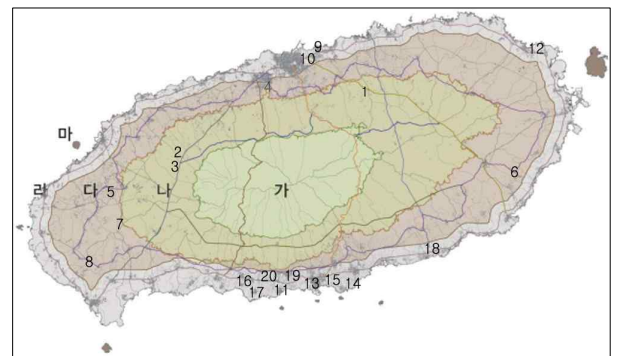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Status of Case Study Museum-2

이는 사례조사 대상의 60%에 해당하는 박물관이 중산간, 해안 및 시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단위 '라' 지역에 위치하며 이는 박물관의 접근성과 인구 밀집지역에 설립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은 해안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며 도로를 중심으로 간결한 박물관 디자인이 적합한 지역이다. 한편 사례조사 대상의 3개(15%)의 박물관이 중산간 지역으로 해발고도 200m 이상 600m 미만 지역인 경관단위 '나' 지역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Table 9. Case Study Museum Status in Jeju

박물관명/(설립주체,년도) 위치/규모 <sup>8)</sup>	경관 단위	전경	형태/재료/색채
1. 4.3평화기념관(도립,2008) 제주시 봉개동 산51-3 지하2층 지상3층	나		역원뿔(주발)형 산화동굴+유리 진초록색
2. 프시케 월드(사립,2007) 제주시 애월읍 소갈리 1551 지하1층 지상1층	나		직사각형+부가형 목재+금속 연갈색+진갈색
3. 테지움사파리(사립,2008) 제주시 애월읍 소갈리 1552 지상2층	나		직사각형 노출Con.+목재 회색+진갈색
4. 제주도립미술관(도립,2009) 제주시 연동 680-7 지하1층 지상2층	다		직사각형 노출Con+유리 연회색
5. 제주현대미술(도립,2007)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 지하1층 지상2층	다		직사각형 제주석+자연석 진회색
6. 두모약갤러리(사립,2002)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37 지상1층	다		직사각형 페인트+목재 연회색+연갈색
7. 오설록티뮤지엄(사립,2001)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235 지상3층	다		직사각형 벽돌+목재 연갈색+진갈색
8. 초콜릿 박물관(사립,2002) 서귀포시 대정읍 일파리 55 지하1층 지상3층	다		직사각형+부가형 자연석 갈색+진회색
9. 국립제주박물관(국립,2001) 제주시 건입동 261 지하1층 지상2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벽돌+화강석 연갈색+연회색
10. 제주교육박물관(도립,1995) 제주시 이도2동 539-1 지하1층 지상2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제주석+노출Con 진회색+진갈색
11. 제주국제평화센터(도립,1996) 서귀포시 중문동 2571 지하1층 지상2층	라		직사각형 유리+스틸 연초록색
12. 헤너박물관(도립,2006)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4-1 지하1층 지상3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제주석+노출Con 진회색+연회색
13. 기담미술관(시립,1987) 서귀포시 서홍동 621 지상1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제주석 진회색
14. 소암기념관(시립,2008) 서귀포시 서귀동 157-2 지하1층 2층	라		직사각형 유리+제주석 연초록+연회색
15. 이중섭미술관(시립,2002) 서귀포시 서귀동 440-1 지상2층	라		원통형 제주석+페인트 진회색+주황
16. 밭거나말거나(사립,2010) 서귀포시 색달동 2864-2 지상2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칼라인조식 복합색
17. 소리섬박물관(사립,2004)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 지상3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제주석+대리석 진회색+연회색
18. 신영영화박물관(사립,1999)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1 지하1층 지상2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페인트뿔칠 백색
19. 아프리카박물관(사립,2005) 서귀포시 대포동 1833 지하1층 지상3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페인트뿔칠 연갈색
20. 테디베어뮤지엄(사립,2001) 서귀포시 색달동 2889 지상3층	라		직사각형+부가형 유리+알루미늄 연두+진회색

8) 자료출처: 박물관 천국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사)제주도박물관협회

이는 제주도의 첫 번째 랜드마크 요소인 한라산에 근접한 지역으로 경관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지역으로 자연녹지 경관과 조화되며 녹지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경관단위 ‘다’는 지역도심의 다양한 색채가 차분하게 어우러지며 거리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향해야하는 박물관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사례조사대상의 5개(25%)의 박물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2) 사례조사 박물관의 설립년도

사례조사대상의 박물관의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곳이 16개소(80%)로 최근 10년 이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은 1개소(기담미술관)이다. 이는 제주도 건축계의 경관에 관한 관심이 대두된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곳임을 알 수 있다.

Table 10.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Case Study Museum

설립시기	나	다	라	계
2000~2010년	3	5	8	16
1990~1999년	-	-	3	3
1989년 이전	-	-	1	1
총계	3	5	12	20

3) 사례조사 박물관의 규모

사례조사대상의 박물관의 지상 층수를 살펴보면 13개(65%)의 박물관이 2층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박물관의 층수와 주변과의 조화성은 제주지역의 지형과 스카이라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해안지역의 경관의 비중이 높은 경관단위‘라’ 지역에서의 3층이상의 박물관이 4개(33%, 총12개)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장래 경관단위‘라’ 지역 중 해안지역의 박물관 계획구상시 형태 및 평면구상의 변화를 줌으로써 2층이하의 박물관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관단위‘나’ 지역의 3층의 박물관(4.3평화기념관)은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보다는 그 지역의 대지와 오름 등의 지형의 특성에 순응하는 2층 이하의 저층으로 계획되어야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었을 것이다.

Table 11. Building Scale of Case Study Museum

구분	나	다	라	계
지상 층수	3층	1	2	4
	2층	1	2	7
	1층	1	1	3
총계	3	5	12	20

4. 경관관리지침에 의한 박물관 외장특성 사례분석

4.1 박물관의 형태분석

경관지침에는 ‘2.2 경관단위 공통 적용사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경관단위에 적용하는 형태개념이 기술되어

회, 2010 및 <http://terms.naver.com> 자료 인용

있으며 경관단위별 형태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 제시는 없으며 <표12>와 같이 중심가로변 건축물에 대한 개념적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Table 12. Building Form Standards of Landscape Unit

경관단위	형태관련 기준
나	• 형태관련 기준 기술 없음
다	• 구시가지-가로변 파사드의 투시도를 극대화하여 이면가구 내 공간과 시각적 소통을 피함 • 신시가지- 풍경의 다양성, 차이권장, 반복을 가능한 배제한 특성은 가로디자인
라	“다” 지역과 동일
공통적용 사항	• 인공구조물 메스는 최대한 분절을 원칙, 형태는 판상형 지양, 탑상형 권장 • 거대구조물은 지하화하거나 기존 지형을 고려한 인공 언덕으로 조성하도록 권장

\* 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10, pp.44~55의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자료 양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함

또한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에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아닌 일부 건축물용도(주택, 공공건축물, 관광시설 등)에 대해 형태와 관련된 사항(규모, 외관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 <표13>과 같다.

Table 13. Form Standard of the landscape Elements of LMG

구분	경관관리지침 기준	
경관요소별	공공건축물	• 3층이하 제한, 3층의 경우 경관위원회심의시 계획서 제출
	산업 및 저장시설	• 거대규모 지양, 형태분절 배치 • 지형을 이용한 외관 설계 • 주변환경과 조화된 시각효과 연출
	관광시설	• 거대규모 지양, 창의적 디자인 • 형태분절, 필로티 설치 등을 통한 개방 지수 확보 가능한 디자인

\* 표 출처: 앞의 책, p.10, pp.75~77의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자료 양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함

이상과 같이 경관관리지침상 형태와 관련된 내용을 고찰해본 결과 박물관의 형태에 관한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경관단위별, 경관요소별 종합적인 형태계획에 관한 개념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단위별 사례조사대상 박물관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조사 대상 박물관의 형태는 7개(35%)의 박물관이 직사각형이었으며 11개(55%)의 박물관이 직사각형+부가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90%를 차지하는 18개 박물관의 주형태는 직사각형을 기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4 참조)

(1) 경관단위 ‘나’ 지역과 형태

테지움과 프시케월드가 위치한 곳은 중산간 지역으로 한라산과 오름과의 조화를 도모해야하는 해발고도 420m 지역이다. 제주 주요간선도로인 평화로와 인접되어 있어 특정경관단위 지역이기도 하며 원경으로 해안조망이 되는 지역으로 경관적인 중요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곳이다. 직사각형(테지움사파리)과 직사각형+부가형, 일명

볼트형(프시케월드)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동일 부지내 서로 인접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형태적인 상호 유사성은 작다.

Table 14. Building Form Status in Landscape Unit

구분	나	다	라	소계
직사각형	1	4	2	7
직사각형+부가형	1	1	9	11
역원뿔(주발)형	1	-	-	1
원통형	-	-	1	1
총계	3	5	12	20

또한 해발고도 550m 내외에 위치한 제주4.3평화기념관은 역원뿔(주발)형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는 박물관 인접 남쪽에 위치한 주요경관요소인 거친오름(해발고도 618m) 등 주변 자연경관의 풍경과는 대조적인 모습의 형태미를 나타내고 있다.

경관단위 ‘나’ 지역은 주로 중산간 지역으로 오름과 산림이 주로 구성 되어 있는바 건축형태는 지형과 주변풍경에 조화로운 형태미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경관단위 ‘다’ 지역과 형태

중산간지역과 기존취락지역 등의 시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관단위‘다’지역은 전체 5개 박물관 중 4개관이 직사각형의 기하학적인 건축형태를 갖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및 오설록티뮤지엄은 직사각형의 완성도 높은 간결한 형태미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폐교된 초등학교(1층)를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모악갤러리의 직사각형 형태는 기존의 인접 주거지와 동질화되어 있으며 추후 제주지역의 폐교나 유휴농축산창고의 문화시설로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경관단위 ‘라’ 지역과 형태분석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경관단위‘라’ 지역은 도심지에 위치한 박물관이 4개관(제주국립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 위치한 박물관이 5개관(제주국제평화센터, 아프리카박물관, 민거나말거나박물관, 소리섬박물관, 테디베어뮤지엄), 자연녹지지역에 3개관(해너박물관, 기당미술관, 신영영화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2개관의 박물관 중 소암미술관은 서귀포시 도심지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건축물의 형태와 유사성 유지하고 있으며, 중문관광단지 해안지역에 위치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간결한 직사각형 유리커튼월 형태로서 인접한 해안 및 자연경관과 대조적인 형태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직사각형+부가형(등근지붕, 반원형, 원통형, 부정형 등)이 12개관 중 9개관으로 가장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제주국립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및 소리섬박물관은 직사각형의 형태와 등근지붕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시가지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자리

하고 있다. 직사각형+원뿔형의 테디베어뮤지엄은 가로변의 레벨과 대지의 레벨차이를 활용하여 주 조망지점인 도로변에서는 박물관의 출입공간인 원뿔형태만 도출되어 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크기의 직사각형 조합으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믿거나말거나 박물관은 해당박물관의 전시 특성과 차별성을 건축물의 형태에 표출하고 있다. 또 다른 이색적인 형태인 아프리카박물관은 중문관광단지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쥬네 대사원<sup>9)</sup>의 외관 형태를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다. 아프리카의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의 형태로는 의미가 있으며 유니크한 형태로 인해 주변 해안풍경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해너박물관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사각형의 주형태와 원통의 보조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단조로움을 상쇄한 외관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주변지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3층 높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적 요소를 갖고 있다. 신영영화박물관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각형과 반원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간결하고 단순한 미학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당미술관은 서귀포항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지의 녹지공간 위치하고 있으며 형태는 직사각형과 작은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녹지와 조화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원통형의 이중섭미술관은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통의 형태가 주변주거지의 건축형태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제주경관의 이미지는 한라산, 오름 등으로 대표되며 제주지형의 자연경관은 융기된 듯 완만한 곡선의 대지형상, 솟아오르지 않은 주변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곡선 이미지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3 참조)



Figure 3. Panoramic View of Land and Oreum in Jeju  
(사진출처: <http://www.slrclub.com>)

이러한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도심지에 위치하는 박물관을 제외한 중산간, 해안가에 위치하는 박물관의 형태계획은 제주지형의 특성과 조화로운 형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아프리카 말리공화국의 쥬네 대사원(Djenne Grand Mosque) 흡으로 지어진 건물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건물 외관이 독특하다.

#### 4.2 박물관의 재료 분석

조사대상 박물관의 주요재료는 자연석(제주석, 화강석 등), 벽돌, 목재, 노출콘크리트, 페인트도장, 산화동판, 칼라인조석, 금속(알루미늄, 스틸)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재료기준에 의해 분류해보면 다음 <표1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Table 15. Material Properties and Classification in LMG

구분		재료종류
동화 재료	자연재료	목재, 자연석(제주석, 화강석)
	인공재료	인조석, 벽돌, 노출콘크리트, 유리, 금속
이질 재료	자연재료	목재, 자연석
	인공재료	인조석, 유리, 금속, 페인트도장

기본경관단위별 일반지침의 재료사용에 대한 내용을 고찰해보면 기본경관단위 공통사항으로는 천연재질의 향토재료 사용을 유도하고 반사가 심한 금속패널, 반사유리, 칼라유리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재료에 페인트 등 재료를 덧바르는 가공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본경관단위별 기준을 고찰해보면 기본경관단위 '나'는 중산간 지역의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을 유도하고 기본경관단위 '라'는 해안지역의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관단위별 건축물과 재료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은 다음 <표16>과 같다.

Table 16.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Materials by Landscape Unit

경관단위 소재		나		다		라	
		건축물	지붕	건축물	지붕	건축물	지붕
동화	자연	○					
	자연+인공		○	○		○	
	인공				○		○
이질	자연						
	자연+인공	○	○	○		○	
	인공				○		○

\* 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10, p.10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자료 양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함

사례조사 박물관에 사용된 주재료를 자연재료, 자연+인공재료, 인공재료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17>과 같다.

Table 17. Building Material Status in Landscape Unit

구분	나	다	라	소계
자연재료	-	1	3	4
자연+인공재료	1	3	4	8
인공재료	2	1	5	8
총계	3	5	12	20

사례조사 박물관 중 자연석을 사용한 것은 4개 관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자연재료와 인공재료가 사용된 경우가 8개 관으로 40%, 인공재료로만 사용된 경우가 8개 박물관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 경관단위 '나' 지역과 재료분석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에 의하면 중산간 지역의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변경관과 동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건축물(외벽)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에는 자연+인공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16 참조)

이에 중산간의 자연경관이 우선시 되는 기본경관단위 '나'지역의 박물관 3개관 중 2개관(테지움사파리, 4.3평화기념관)이 인공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재료는 한곳도 없는 것은 경관지침에서 제시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관단위 '다' 지역과 재료분석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에 의하면 천연재료의 향토재료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변경관과 동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건축물(외벽)에는 자연+인공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에는 인공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16 참조)

이에 각 박물관의 재료를 분석해보면 초콜릿박물관은 제주의 자연석 막쌓기를 외벽에 사용하여 초콜릿박물관의 독창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되며 제주현대미술관의 경우 제주석을 일반적인 외벽건축공법이 아닌 제주석을 모듈화하여 수평적으로 켜쌓기를 적용하여 새로운 제주석의 외벽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우수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황색벽돌과 제주석을 혼용하여 사용한 오설록티뮤지엄과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단순한 의장성을 강조한 제주도립미술관 등은 우수한 외관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로우도 함께 공유한 사례로 판단된다.

(3) 경관단위 '라' 지역과 재료분석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에 의하면 해안지역의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동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건축물(외벽)에는 자연+인공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에는 인공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16 참조)

이에 각 박물관의 재료를 분석해보면 사례대상 12개 박물관 중 3개 관(25%)의 박물관(기당미술관, 소리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은 자연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기당미술관은 제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향토재료인 제주석을 사용하여 인접한 자연림과 서귀포항 주변의 암석과 조화로운 이미지를 표출하는 우수한 사례로 분석되고 소리섬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도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토재료인 제주석을 주재료 사용하여 주변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5개 관(42%)의 박물관(아프리카박물관, 밀거나말거나박물관, 테디베어뮤지엄, 제주국제평화센터, 신영영화박물관)은 박물관마다의 특징적인 인공재료만으로 외

피가 구성하고 있다. 아프리카박물관의 재료는 칼라페인트로서 첼네대사원을 최대한 본뜨기 위해 ALC블록 위에 갈색페인트를 도장한 것으로 장소성에 대해서는 부적합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밀거나 말거나 박물관의 경우 다양한 색채의 칼라페인트를 도장 하였는데 이는 해당 박물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중문단지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도시적 이미지의 유리커튼월로 구성되어 있어 인접 해안경관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4.3 박물관 외장색채 분석

건축물의 색채는 외피재료의 고유한 색상에 의해 표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개념을 근간으로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의 색채에 관한 공통사항으로는 돌담현무암 색과 잘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하고 재료 고유의 질감과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지붕은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지붕색 사용을 지양<sup>10)</sup>하고 있다.

Table 18. Landscape Color Status of in Landscape Unit

구 분	나	다	라	소계
청정바다빛(연초록색)	-	-	3	3
오름갈대빛(연갈색)	-	1	1	2
제주갈옷빛(갈색)	-	-	1	1
돌담현무암빛(진회색)	-	1	5	6
제주숲빛(진초록색)	1	-	-	1
제주흙빛(갈색+진회색)	-	1	-	1
제주암석빛(진갈색)	1	-	-	1
기타(백색, 연회색, 복합색 등)	1	2	2	5
총 계	3	5	12	20

사례조사대상 박물관 외벽 및 지붕의 주조색채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분포도는 돌담현무암빛(진회색계열)이 6개관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제주석을 외벽재로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청정바다빛(연초록색)으로 15%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외벽재료가 유리커튼월인 경우로 조사되었다. 그이외의 색상은 푸른바다빛(연파랑색), 유채꽃빛(노랑색), 제주굴빛(주황색)등을 제외하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1) 경관단위 '나' 지역과 색채분석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에는 중산간 지역의 특성인 자연녹지 및 산림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건물은 녹지를 돋보이게 하는 색채를 사용하고 저채도, 중·저명도의 주조색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산간 지역은 돌담이 특히 많은 지역으로 돌담과 어울리는 색채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연경관의 연속성을 위하여 시각적 자극이 없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색채를 권장<sup>11)</sup>하고 있다.

1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 p.37, p.48, p.59



Table 19. External Design Factors and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Comprehensive Profiles of Case Study Museum

외부 의장적 요소		박물관 사례조사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		
		나	다	라	소계	나	다	라
		3	5	12	20			
형태	직사각형	1	4	2	7	● 분절(分節) : 제주 고유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공 구조물의 매스는 최대한 분절을 원칙 △ 인공구조물의 형태는 판상형을 지양하고 탑상형 권장 △ 거대구조물의 경우에는 지하화하거나 기존 지형을 고려한 인공 언덕으로 조성		
	직사각형+부가형	1	1	9	11			
	역원뿔(주발)형	1	-	-	1			
	원통형	-	-	1	1			
재료	자연재료	-	1	3	4	○ 중산간지역의 자연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	○ 천연재질의 향토재료 사용 유도	○ 해안지역의 자연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
	자연+인공재료	1	3	4	8	○ 천연재질의 향토재료 사용 유도		
	인공재료	2	1	5	8	× 반사가 심한 금속페널, 반사유리, 칼라유리 사용금지 × 자연 재료에 페인트 도장 등 재료를 덧바르는 가공 금지		
색채	청정바다빛(연초록색)	-	-	3	3	○ 산림경관이 배경인 건물은 저채도, 중·저채도의 주조, 보조, 강조 색상 유도	△ 가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저채도의 건축물 기준색 형성	△ 해안지역 건축물은 차분하며 산뜻한 중·저채도의 주조, 보조, 강조 색상 사용
	오름갈대빛(연갈색)	-	1	1	2			
	제주갈옷빛(갈색)	-	-	1	1			
	돌담현무암빛(진회색)	-	1	5	6	○ 돌담 현무암 색과 어울리는 배색 유도	○ 돌담 현무암 색과 어울리는 배색 유도	○ 돌담 현무암 색과 어울리는 배색 유도
	제주숲빛(진초록색)	1	-	-	1	△ 재료 고유의 질감과 색채 사용 권장	△ 재료 고유의 질감과 색채 사용 권장	△ 재료 고유의 질감과 색채 사용 권장
	제주흙빛(갈색+진회색)	-	1	-	1			
	제주암석빛(진갈색)	1	-	-	1	△ 시각적 자극이 없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의 색채 권장	○ 시각적 자극이 적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의 색채 사용	△ 시각적 자극이 적으며 활기찬 느낌을 주는 색채 사용
	기타(백색, 복합색 등)	1	2	2	5			

이에 각 박물관의 색채사용에 대해 분석해보면 먼저 제주4.3평화기념관은 산화동판의 진초록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제주숲빛 계열이긴 하나 해당 박물관의 형태와 스케일 그리고 인공재료인 산화동판이 주변경관과 대조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테지움사파리는 노출콘크리트의 연회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시케윌드는 금속재료의 진갈색의 색채로 되어 있다. 이에 돌담과 어울리는 제주의 빛깔을 지닌 재료와 색채계획이 동일 부지내에 적용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2) 경관단위 '다' 지역과 색채분석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에는 도심의 활력을 부여하는 상업지역과 차분한 색채를 부여하는 주거환경의 구분에 따른 적절·다양한 색채군 형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도심경관의 시각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중·저채도의 건축물 기준색을 형성<sup>12)</sup>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박물관의 색채사용에 대해 분석해보면 돌담현무암빛(진회색)의 제주현대미술관, 오름갈대빛(연갈색)의 오설록티뮤지엄, 제주흙빛(갈색+진회색)의 초콜릿박물관, 연회색의 제주도립미술관과 두모악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조사 대상의 박물관의 색채는 타 경관단위에 비해 가장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건축물의 형태에 적합한 제주 향토색채에 근접한 색채를 사용한 사례이다.

(3) 경관단위 '라' 지역과 색채분석

경관단위별 일반지침에는 해안지역의 건축물은 해안의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차분하며 온화한 색채를 유도하고 주조색은 중·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시각적 자극이 적으며 활기찬 느낌을 주는 색채 사용을 권장<sup>13)</sup>하고 있다. 또한 이지역도 돌담이 많은 지역으로 돌담과 어울리는 색채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각 박물관의 색채사용에 대해 분석해보면 12개 박물관 중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는 돌담현무암빛(진회색)은 5개(33%)의 박물관(제주교육박물관, 해녀박물관, 기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리섬박물관)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들 돌담현무암빛 색상은 제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색상의 하나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로우며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전체를 돌담현무암빛으로 구성 할 경우 다소 무겁고 칙칙한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산뜻한 보조 및 강조색의 혼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 이중섭미술관은 돌담현무암빛 색상을 주조로 주황색의 수직 버트레스를 보조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박물관디자인과 주변경관에 조화롭지 못한 색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청정바다빛(연초록색)의 색상을 나타내는 3개의 박물관(소암기념관, 제주국제평화센터, 테디베어뮤지엄)은 유리커튼벽이 주외벽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초록 색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외

1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36~37

1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48~49

1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58~59

피의 색채만을 평가 할 경우 경관관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안경관과의 조화로운 색채구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사례조사 박물관의 외부 의장적 요소인 형태, 재료, 색채에 관한 사항을 경관관리지침 기준에 준하여 분석결과를 <표19>에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지침은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敘事的 風景)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제주의 고유한 서사적 삶이 물리적 경관으로 변용된 모습이 바로 제주다운 경관이며, 제주경관의 정체성인 것이다. 이러한 경관관리지침의 개념 하에 제주지역 박물관의 사례조사 분석결과 경관관리지침 기준과는 일부 상이한 형태, 재료, 색채의 의장적 특징이 도출되었다. 20개관의 사례조사 박물관의 설립시점이 경관관리지침이 수립·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박물관이기는 하지만 제주건축에서 박물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기에 경관관리지침 시행이후에 설립되는 박물관은 보다 제주경관의 정체성에 적합하도록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에 의한 제주지역 주요 박물관의 의장적 요소인 형태,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사례조사 박물관 형태의 90%를 차지하는 18개관이 직사각형을 기본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의 전시기능과 평면구성의 효율성을 고려한 형태계획으로 판단되지만 제주의 한라산, 오름, 대지 및 해안선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도심지 박물관을 제외한 중산간, 해안가에 위치하는 박물관의 형태개념은 제주자연과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사례조사 박물관에 사용된 주제료를 자연재료인 제주석을 사용한 것은 4개관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자연재료와 인공재료가 사용된 경우가 8개관으로 40%, 인공재료로만 사용된 경우도 8개관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향후 중산간 지역과 해안지역과 조화로운 향토재료인 제주돌, 제주흙(송이), 목재 등의 사용비중이 증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사례조사 박물관의 주조 색채의 분포는 돌담현무암빛(진회색계열)이 5개관으로 전체의 25%이며 이는 대부분 제주석을 외벽재료 사용한 경우이다. 청정바다빛(연초록색)은 15%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외벽재료가 유리커튼월인 경우로 조사·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관관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의 정체성을 고려한 색채와 그 지향점이 같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앞으로도 제주의 빛이 박물관디자인에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서 경관관리지침 기준과는 일부 상이한 형태, 재료, 색채의 의장적 특징이 도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공구조물인 건축물이 이땅의 주인이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일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낸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제주도는 자연·문화적 특성이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제주정체성을 보전하고 자연과 건축이 상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지침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지역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 박물관건축은 제주의 경관지향점에 맞춰 지역건축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박물관 디자인의 장래 지향점을 제시한 기초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분석된 사례분석 자료는 향후 박물관 건축의 설립주관자와 건축가 그리고 행정기관의 발전적인 논의에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관관리지침 중 건축물과 관계된 부지조성, 좌향 등의 사례분석과 배치계획 등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기초연구로서의 한계이며, 이것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수행 될 과제이다 이와 함께 경관관리지침 시행 이후 설립되는 박물관의 의장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관관리지침시행 전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김정근, 루이스 칸의 박물관건축에 나타난 평면구성의 특성, 대한건축학회지 제 23권 10호 pp.5~12, 2006
2. 심승현, 박물관에 있어서의 수직동선 요소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p.3964-3973, 2010
3. 이재엽 최윤경, 국내 박물관 건축의 공간구성 특성에 의한 시대적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23호 pp.71-78, 2008
4. 윤종현 이정민 김형준, 스티븐 홀의 박물관 건축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표현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6권 제2호 통권16호, pp.133-142, 2011
5. 정태용, 리베스킨트의 유테인 박물관에 나타난 건축 개념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1 n.2(통권 91호) p46-55, 2012
6. 조성용, 건축박물관의 기능구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5), 2012
7. 국립제주박물관 (사)제주도박물관협의회, 박물관천국 제주, 2010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2009
10. 국제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icom.museum>
11.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12.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
13. 제주도 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maojp.org>

접수일자 : 2013. 01. 09

심사일자 : 2013. 01. 15

게재확정 : 2013. 01. 22